

전남사회서비스원 개원 1년 공공복지 허브기관 자리매김

긴급돌봄 등 복지안전망 구축 앞장 개원 1주년 복지포럼·비전선포식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12일 개원 1주년을 맞아 남도소리울터에서 전남복지포럼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다짐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6월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남복지재단이 전환돼 설립된 기관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개원 이래 1년 간 순천 지역 한신더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 등도 추진하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보건·복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혈당·혈당 검사 및 이·미용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했다.

아울러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시설안전점검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인 '전남복지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왔다.

이날 열린 비전선포식에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전남 대표 사회서비스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비전선포식과 함께 열린 전남복지포럼에서는 '전남행복시대, 사회서비스에 공공성을 묻다'라는 양난주 대구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지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신현숙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난 1년간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긴급돌봄서비스 확대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며 "개원 1주년을 맞아 따뜻한 사회서비스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립도서관, 실내 녹색 휴식공간 인기

스마트가든 조성 이용자 힐링

전남도립도서관이 지난 6월 무안군과 협력해 조성한 실내정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내정원에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홍콩야자과 스파트필름, 테이브야자, 산호수 등 다양한 종류의 공기정화 식물과 관엽 식물을 심어 실내 미세먼지와 악취, 각종 유해 물질을 줄이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도서관 벽면에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정원이 조성됐으며,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덩굴숲 카페 힐링 공간과 양파 모양의

원형 벤치를 조성했다. 양파 벤치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지하 연못은 맑은 물과 함께 각종 수초와 연꽃 등 수생식물로 꾸며져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실외 독서문화마당 공간 등 노후 야외 시설물을 리모델링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도립도서관은 유희공간인 4층 옥상을 활용한 북카페(북콘서트장)와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 조성 등 도서관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2023년 국비사업을 신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중언어강사 교육...결혼이민여성 사회정착 돕는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과정 개강 2021년까지 187명 배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지난 7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정착, 자립 및 전문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사진> 이 과정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이중언어강사로서 기본 자질 함양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실습 위주의 교육, 이중언어강사의 피드백 등으로 모두 40시간으로 편성됐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87명의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했으며, 이중 101명(54.0%)이 이중언어강사, 다문화 이해강사, 가족센터, 대학 국제교류 교육원 등 관련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재단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모아 네트워크'에 기존 수료생들을 연계, 협동조합 설립 및 창업 활동을 위



한 소모임 구성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포에 등록하여 전남 교육청, 가족센터 등 유관 기관 채용에 힘쓰고 있다.

안경주 재단 원장은 "이중언어강사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군 급식 조달 수의계약 체계 유지 건의

문금주 부지사, 국방부 방문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도 요청

전남도가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 관련 농·수협 수의계약 연차적 축소 움직임과 관련 현행 조달 방식을 유지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국방부를 방문해 현행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군 급식조달 방식을 유지해주거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해 말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농수축협 간 일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되던 것을 연차적으로 수의계약 물량을 축소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조달방식으로 전환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매년 계획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농수축협의 군 급식 납품 물량 축소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농·수산물의 수입산 저급·저가 식재료 증가에 따른 군 급식의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수의계약 납품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종합대책에 따른 군 급식 납품체계 개선안을 수정하는 건 곤란하지만, 농수축협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국내의 선선하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군 장병들 식탁에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부지사는 "도내 농수축산업인이 군납품 체계 개선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관광숙박업 신축 등

저리 용자 29일까지 접수

도, 최대 30억 금리 0.5%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3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내 관광 숙박업과 펜션업,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민간 관광사업의 시설 확충 및 운영에 저금리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융자 규모를 70억원으로 배정했다. 대출금리는 2022년 융자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추가감면을 통해 0.5% (3개월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대상 업종과 사용 목적에 따라 융자한도는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까지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의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0.5%까지 줄이고 융자 한도도 3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며 "전남 방문의 해 운영에 발맞춰 관광객 수용태세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도내 관광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에 17개 업체 30억원을 선정해 지금까지 총 62개 업체에 334억원을 지원했다. 4차 융자지원을 10월께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유기농자재 지원 103억원으로 확대

지나해 대비 151% 증액

전남도가 농업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규모를 올해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41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62억원(151%)을 증액해 103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에게는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 종자, 토양검정 및 컨설팅 등 비

용을 보조한다.

지나해까지는 친환경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의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법인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관행 농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농업인·법인은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서, 자부담 선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ha당 총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농가는 200만원까지, 무농약인증 농가는 150만원까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